

충청남도 농정 재설계를 위한 정책지도 시리즈 ②

충남 농업경영체의 공간 분포



배경 및 목적

- 젊은 농업인력 유치 및 농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농지 및 농업인 육성 정책이 필요함
- 그러나 관련된 데이터 기반의 체계적 정보 창출과 이를 활용한 합리적 의사결정은 미흡함
- 이에 농지, 농업경영체, 주요 농업 지원 정책 등 3가지 요소를 ‘공간’이라는 관점에서 연속기획으로 다루고자 함
- 두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 농업경영체의 개별속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하고자 함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2022년 9월 집계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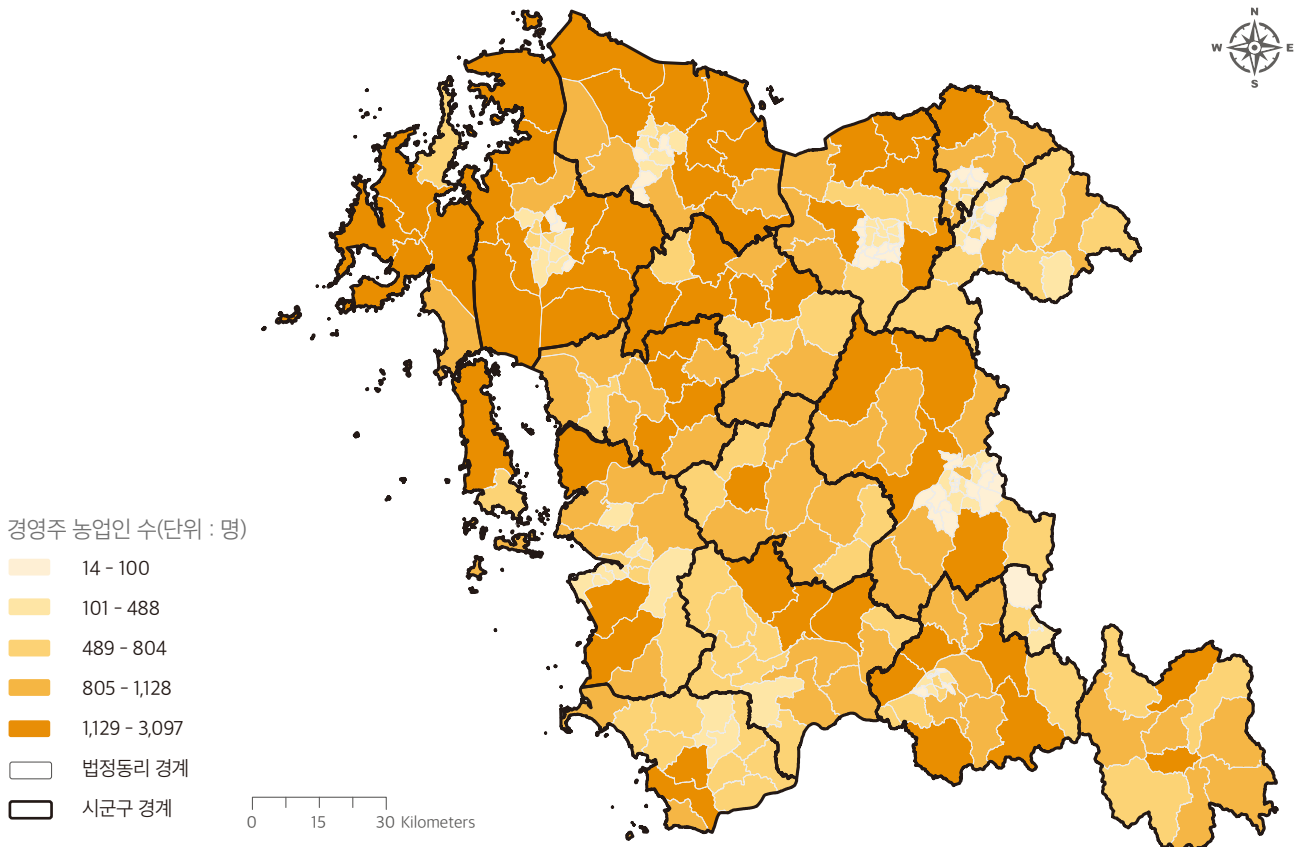
* 주: 1. 데이터 결측치는 분석에서 제외함

2. 첫 번째 정책지도 시리즈는 충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체별 특성에 따른 공간 분포를 파악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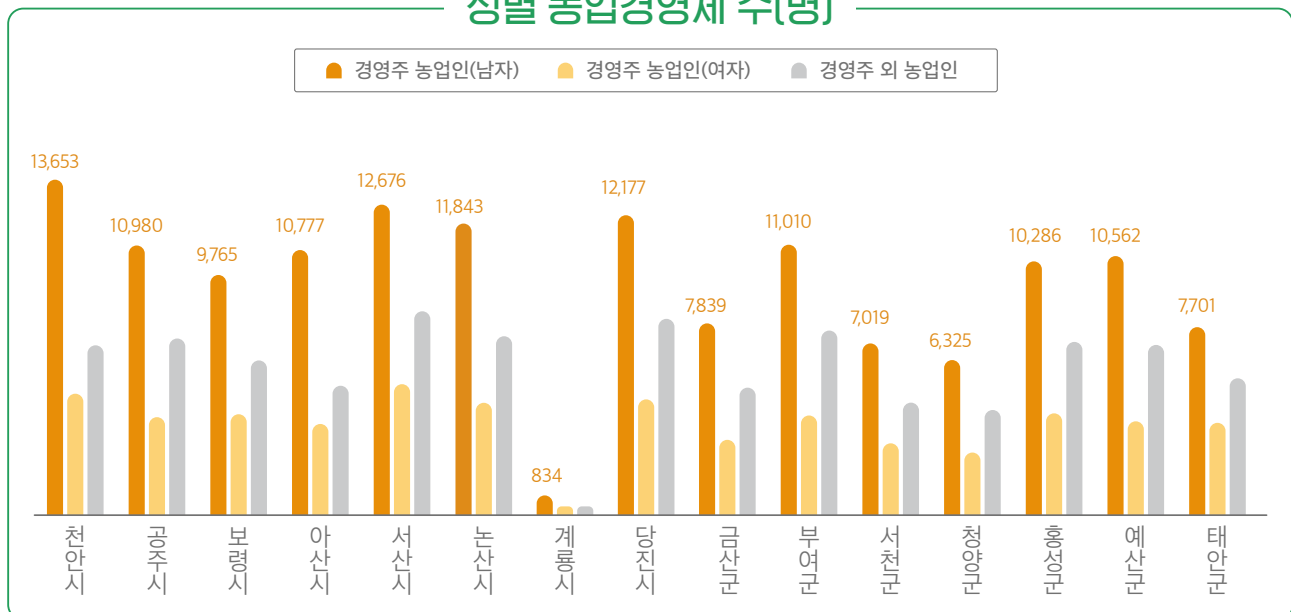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분포

농업경영체란? ㉠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구성되는데 경영주 외 농업인은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및 자매, 고용인 등을 말함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199,983명, 이 중 남자 경영주는 143,447명(71.7%), 여자 경영주는 56,536명(28.3%)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등록된 자는 91,023명, 이 중 공동경영주로 등록한 자는 9,978명에 불과
- 경영주 농업인과 경영주 외 농업인을 합하면 총 291,006명, 그러나 행정통계는 경영주 농업인 수치만을 집계함(충남 인구는 2,119,257명, 2021년 기준)
- 농업경영체 중 경영주 농업인이 가장 많은 시군은 천안시 18,633명(천안시 인구의 2.8% 차지), 서산시 18,071명(서산시 인구의 10.2%), 당진시 16,933명(당진시 인구의 10.1%)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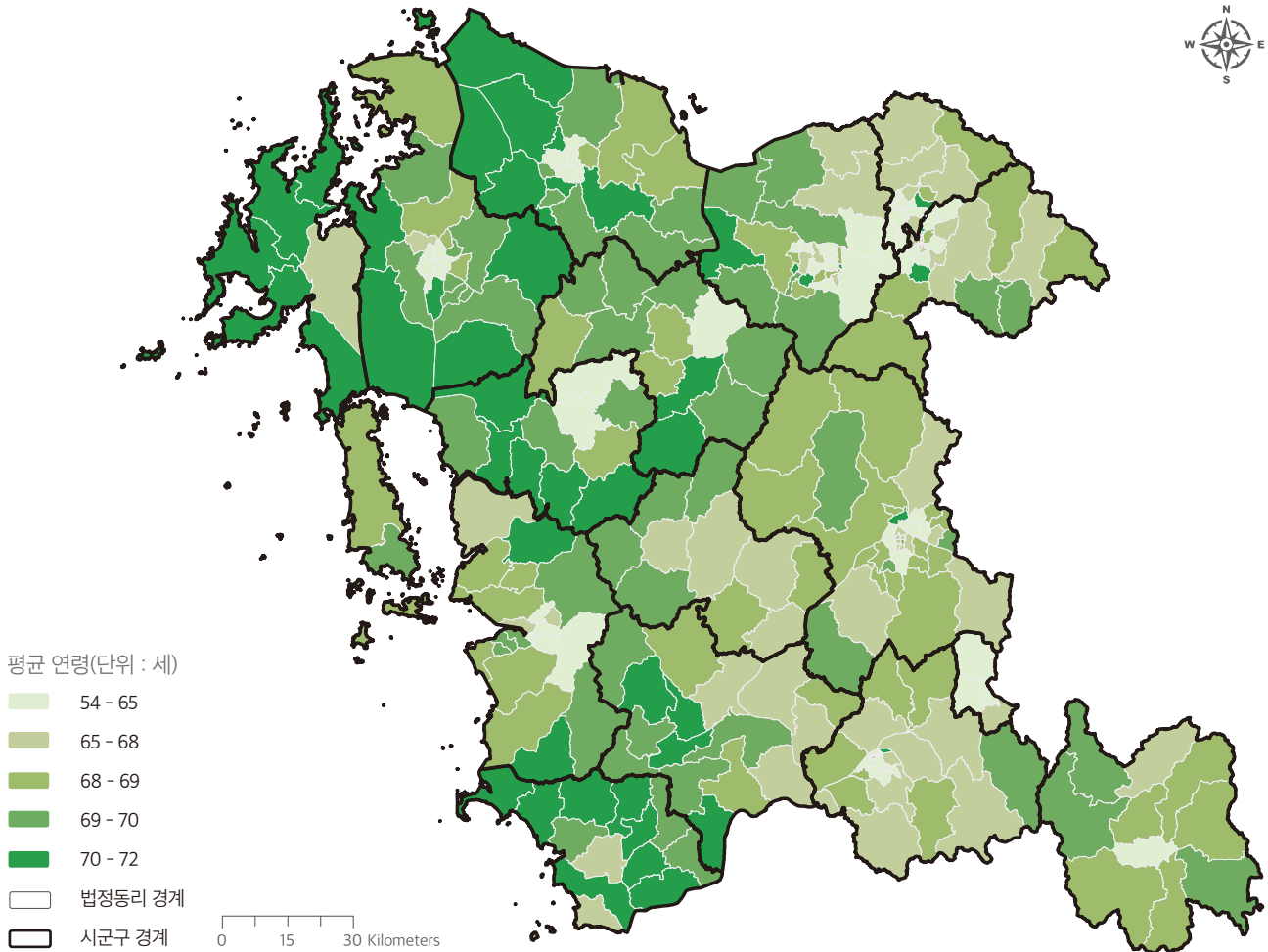


성별 농업경영체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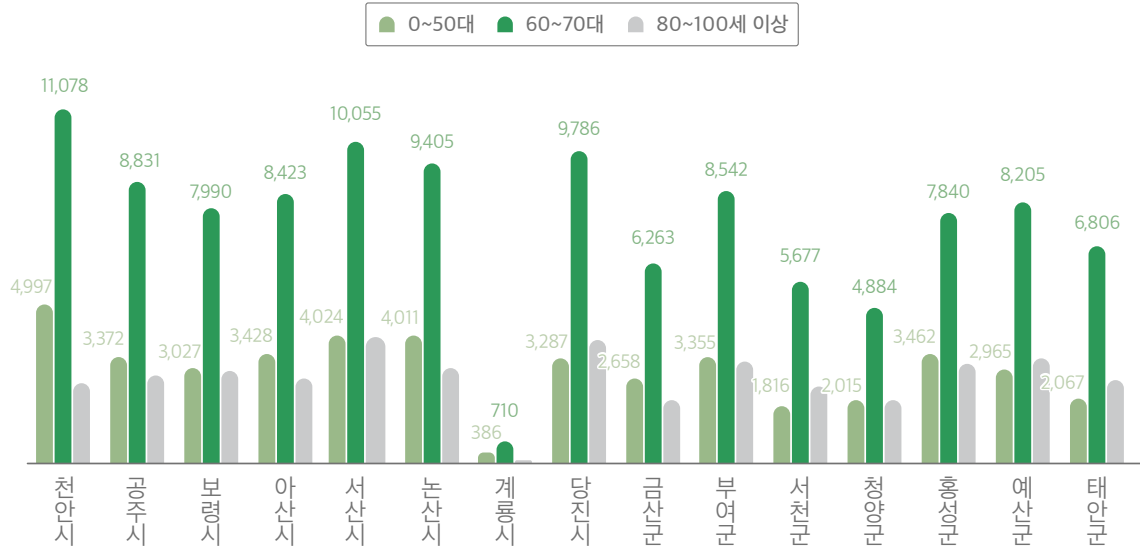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 199,983명)의 평균 연령은 68세, 이 중 50대 이하는 44,870명(22.4%), 60대~70대는 114,495명(57.3%), 80대 이상은 40,618명(20.3%)으로 파악
- 농업경영체 수가 가장 많은 시군은 50대 이하의 경우 천안시(4,997명), 60대~70대의 경우도 천안시(11,078명), 80대 이상의 경우는 서산시(3,992명)에 분포



연령대별 농업경영체 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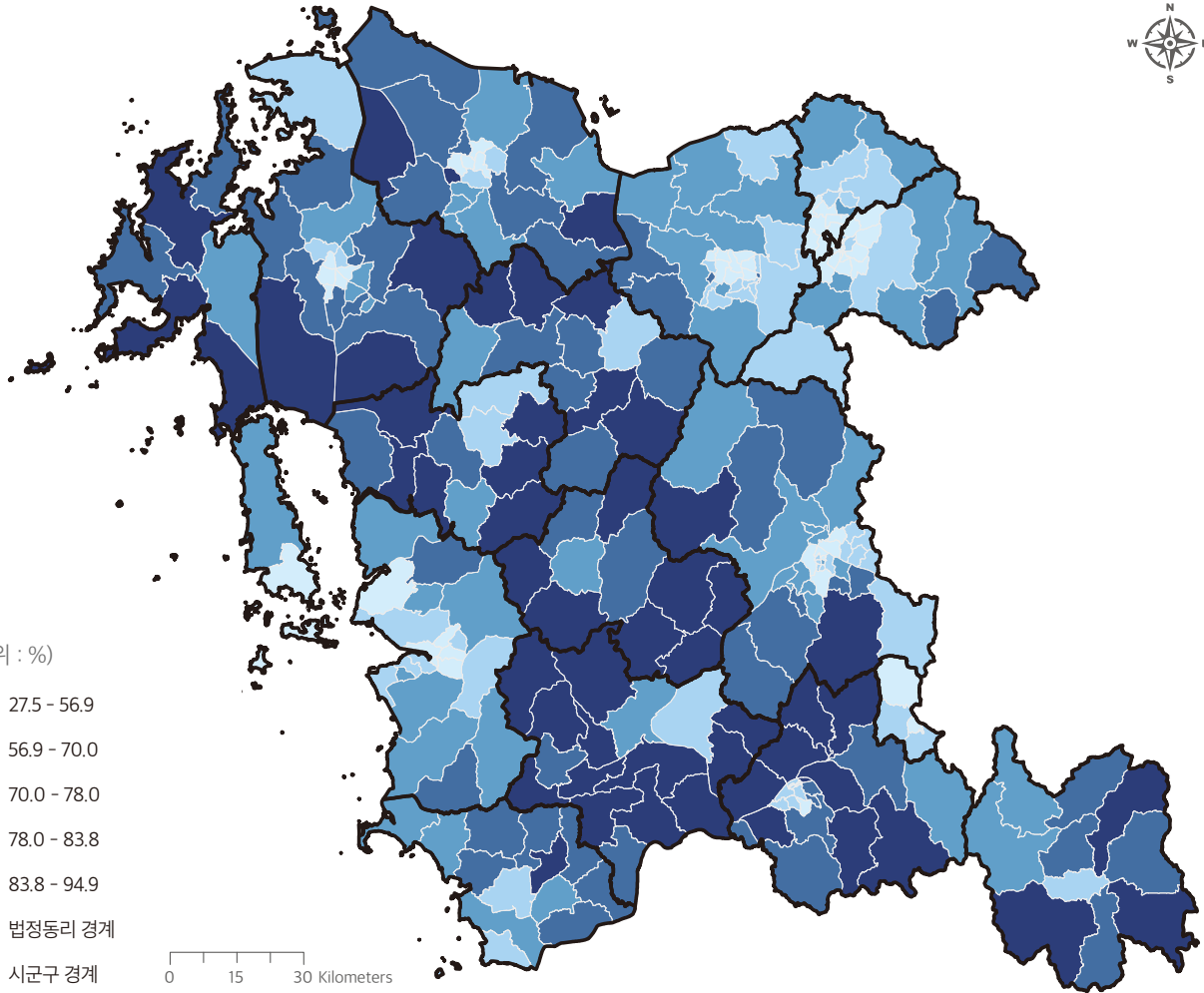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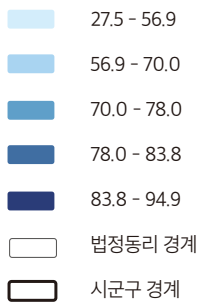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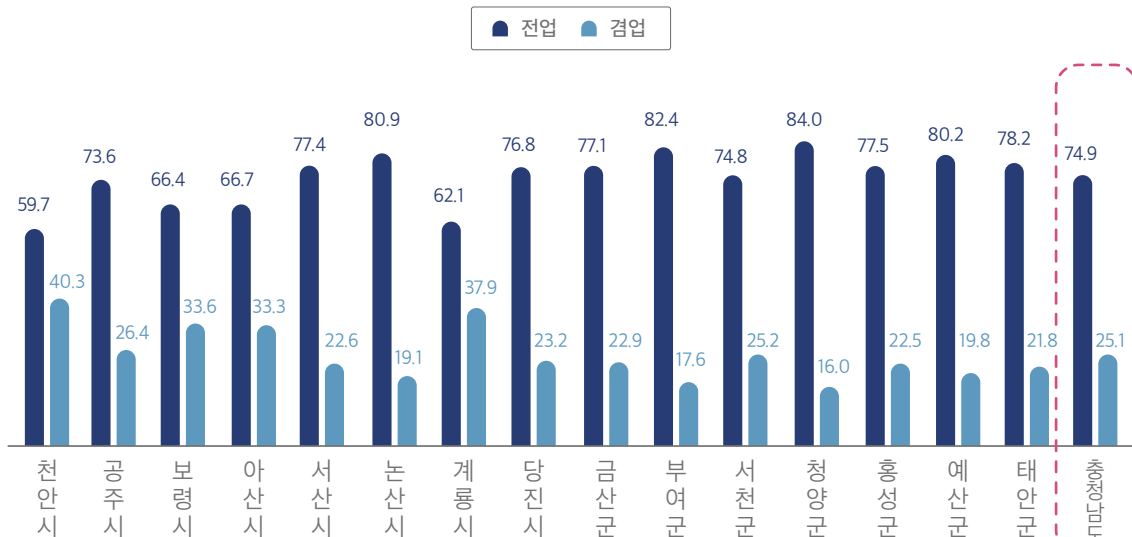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 199,983명) 중 전업은 149,694명(74.9%), 겸업은 50,289명(25.1%)으로 파악
- 전업이 가장 많은 시군은 서산시(13,987명, 77.4%), 겸업이 가장 많은 천안시(7,507명, 40.3%)에 분포



전업(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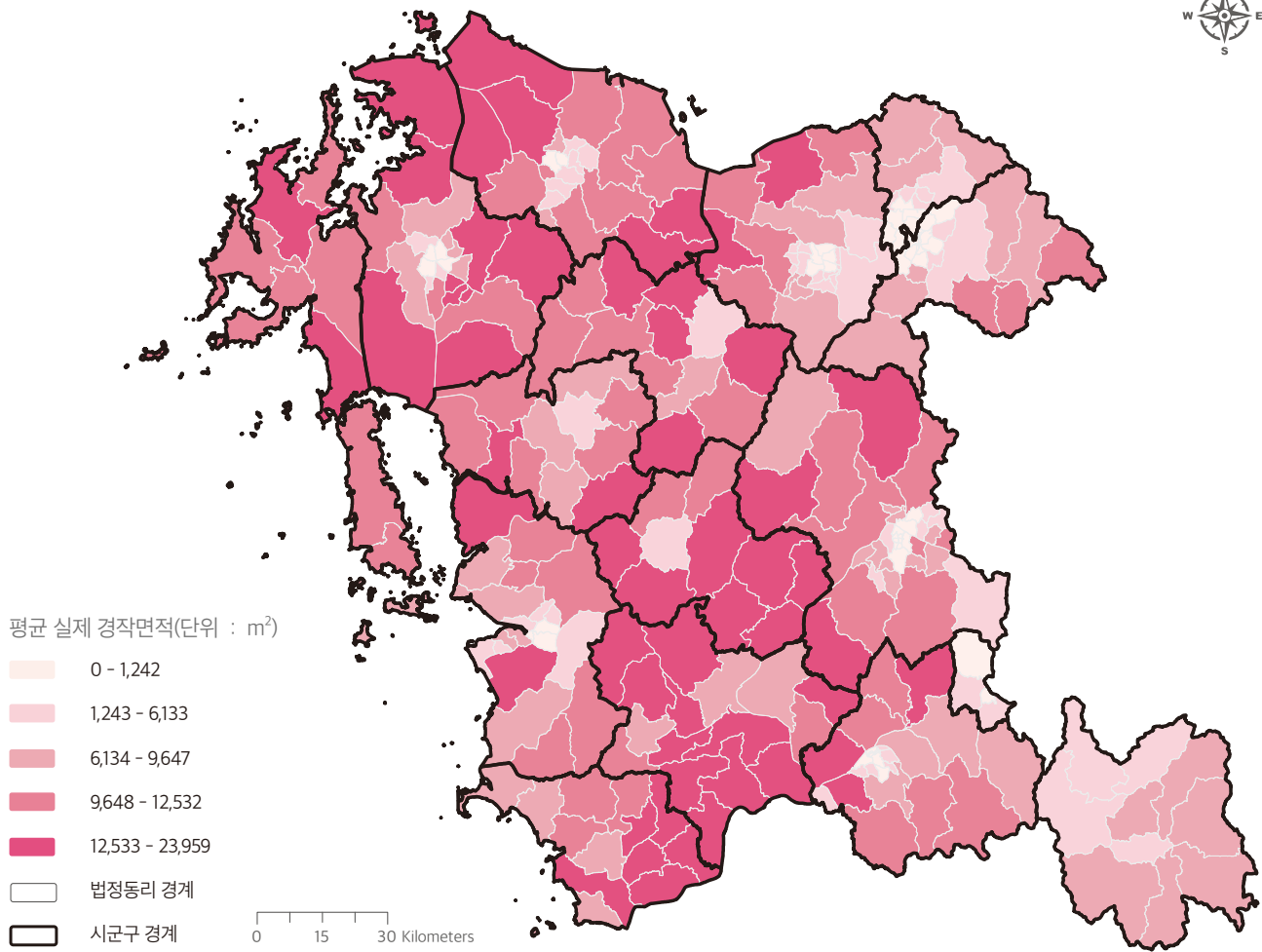


전업·겸업별 농업경영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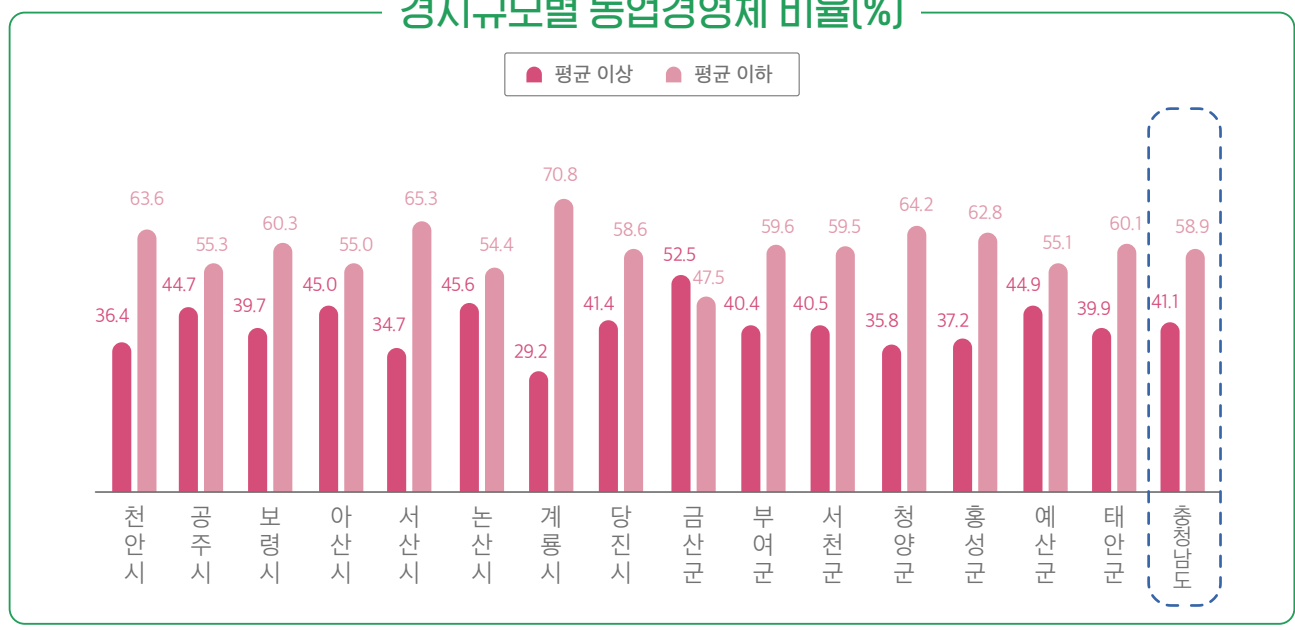


농업경영체의 경작면적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의 실제 경작면적은 총 1,957백만㎡,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은 9,790.3㎡(2,961.5평), 법정동 당 평균 경영주 수는 702명
- 충청남도 경영주 당 실제 경작면적이 평균 이상인 경우는 41.1%, 평균 이하인 경우는 58.9%인 것으로 파악
- 충청남도 평균 실제 경작면적보다 많은 시군은 서산시 12,917.3㎡, 청양군 11,958.5㎡, 부여군 11,722.3㎡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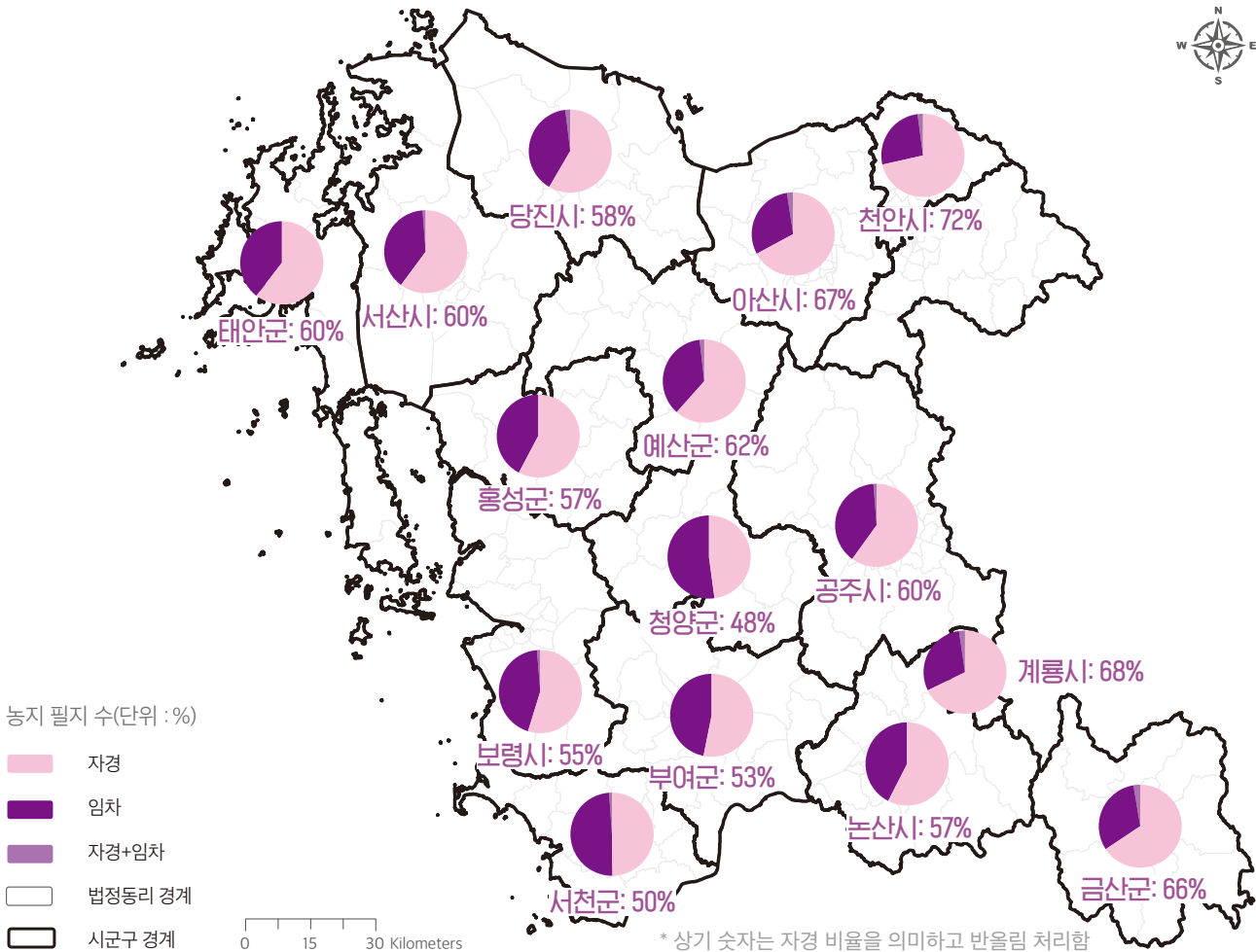


경지규모별 농업경영체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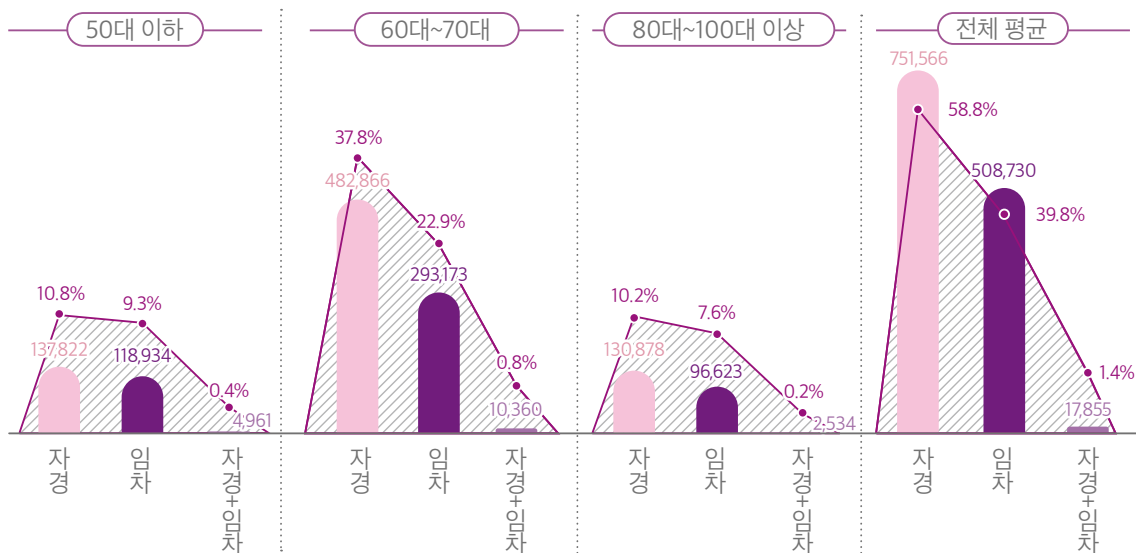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분포

- 충청남도 농업경영체가 경작하는 농지 필지 수는 1,278,151건, 이 중 자경은 58.8%, 임차는 39.8%, 자경과 임차 혼합은 1.4%로 파악
- 자경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천안시(71.5%), 임차 비중이 높은 시군은 청양군(51.6%)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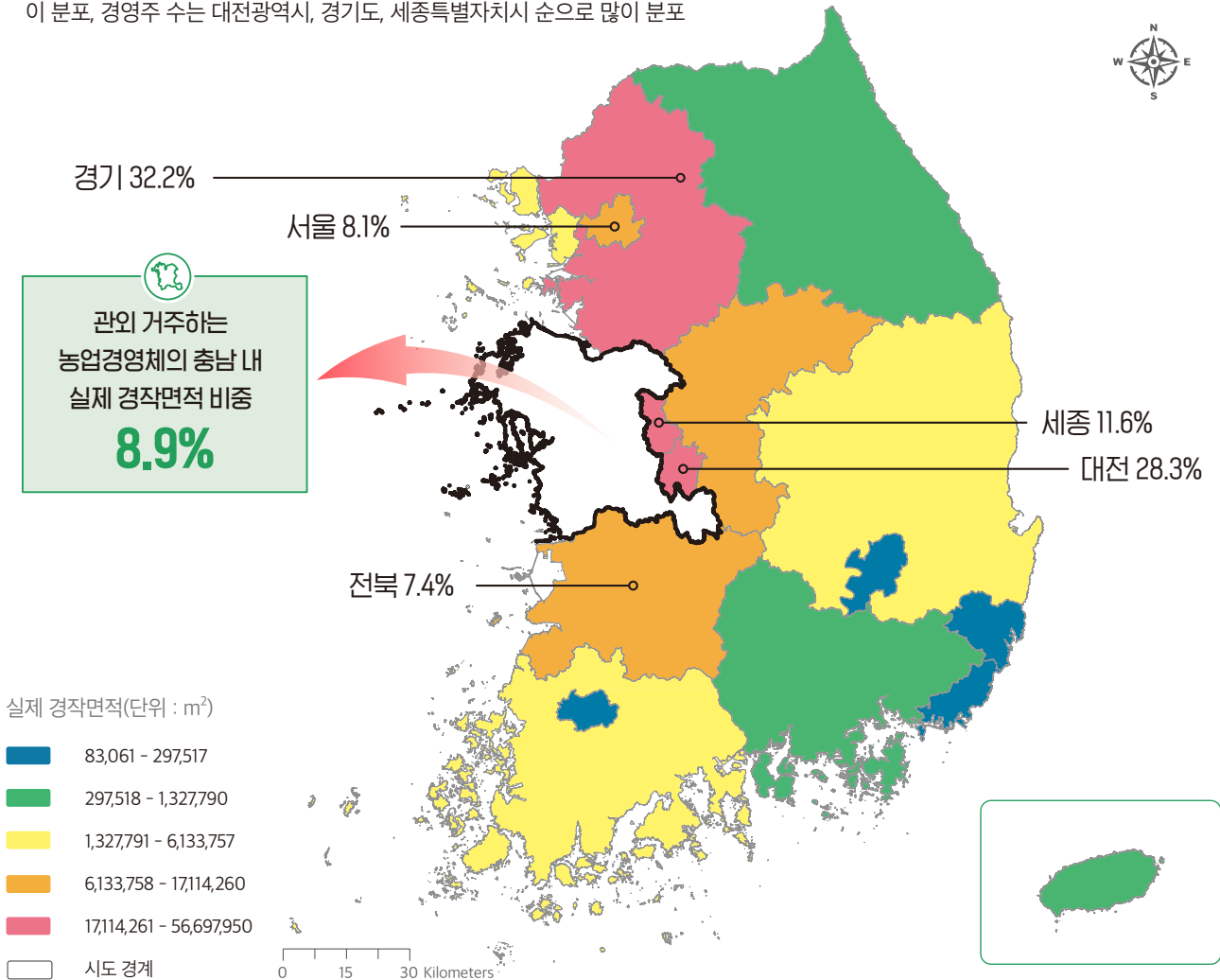


농업경영체의 임대차별 농지 필지 수(건) 및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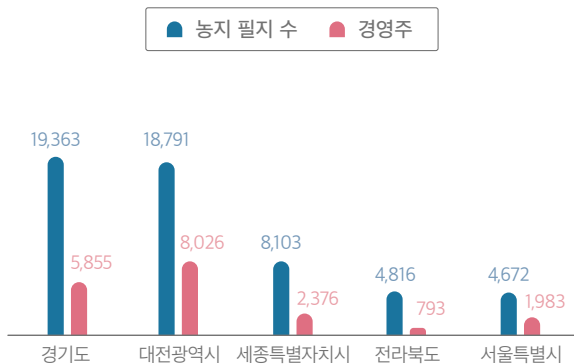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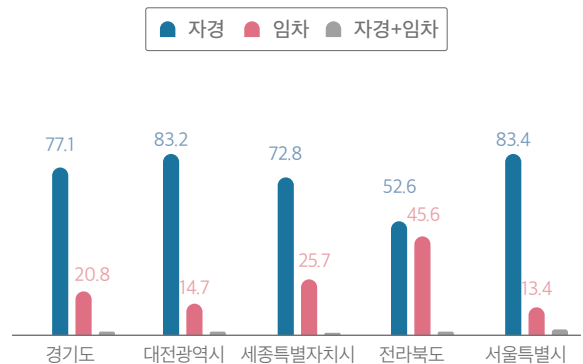
- 충남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는 21,292명, 이들의 농지 필지 수는 63,486건, 실제 경작면적은 총 173.3백만㎡, 경영주 당 평균 실제 경작면적은 8,138.1㎡(2,461.8평)
- 충남에 농지를 두면서 관외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경영주 농업인 기준)의 농지 필지 수는 경기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많이 분포, 경영주 수는 대전광역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 순으로 많이 분포



상위 5개 지역의 관외 거주자
농지 필지 수(건) 및 경영주(명)



상위 5개 지역의 관외 거주자
자경 - 임차 농지 필지 수 비율(%)



정책과제

농업경영체를 둘러싼 최근 이슈정리

- 농업경영체가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인정하는 수단이 부재한 것에 대한 논란
- 일정 농지면적만 확보하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할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가짜 농업인 양산
-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중 농지만 인정되는 것은 임차비중이 높은 현실과 배치되는 문제
- 대부분 농정 보조사업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만을 중요한 자격기준으로 인정하여 누락되고 배제되는 계층 발생(예. 여성농민, 청년농민, 불법임대차 거래에 노출된 농민 등)
- 농업경영체 등록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은 무급종사자로 인식되어 법적·제도적 지위보장이 취약한 구조
- 농업경영체, 농가인구, 농업인, 농민 등 통계수치 차이, 모호한 개념에 따른 정책집행 과정에서 혼란

① 농업경영체 등록의 편중화 제도 개선

- 농업경영체 중 남성 경영주의 편중화(남자 경영주 71.7%, 여자 경영주 28.3%), 여성 배우자는 대부분 경영주 외 농업인이면서 공동경영주로 등록하지만 농업경영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제도 개선 필요

② 연령에 맞는 농업경영체 지원 차등화 정책과제 필요

- 농업경영체가 고령화(충남 경영주 평균연령 68세)됨에 따라서 연령에 맞는 지원사업으로 차등화하는 정책과제 필요

③ 전업 농업경영체에 대한 경영안전망 확충 정책과제 필요

- 농업소득(충남 평균 농업소득 1,400만 원 수준, 2021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업농 못지않게 겸업농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실행 필요

④ 농지 임대차 극복을 위한 정책과제 필요

- 지역별 농업경영체 고령화도 자경과 임차 비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농업경영체의 연령별 임대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년층에는 농사지를 땅을 제공하는 정책과제, 은퇴층에는 경영이양을 유도하는 정책과제 필요

⑤ 관외 거주하는 농업경영체에 대한 실제 경작인증 정책과제 필요

- 관외 거주하는 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면적 비중은 약 8.9%로서 주로 대도시인 경기, 대전, 세종 등에 거주하고 임차보다 자경 비율이 높는데 실제 경작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고 인정하는 충남만의 정책설계 필요

농업경영체 개념에 대한 기초이해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하는데 농업인은 다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을 말하고 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된다.

①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실제로는 이 조건이 가장 중요, 이것만 인정)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